

NYU, department of Neurology

윤준필(본과 4년)

1. 목적

2016년 6월 27일부터 7월 22일까지 4 주 동안 뉴욕대학교에서 Neurology department 에서 실습하였습니다. 이 병원에서의 실습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먼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경험해 보고 싶다는 데서 시작하였습니다. 그 중 가장 인종이 다양하고 국제적인 도시인 뉴욕에서의 의료서비스를 체험해 보고 싶어 MOU를 맺은 기관 중 뉴욕대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Neurology에 관심이 있었고, Neurology가 ICU, Ward, Out-patient clinic, Consult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에 관여하기 때문에 Neurology를 선택하여 실습하게 되었습니다.

2. 병원소개



저는 뉴욕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병원 중 Public Hospital인 Bellevue Hospital에서 주로 실습을 하였습니다. Bellevue hospital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 된 Public Hospital이고 현재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 중 가장 오래된 병원입니다. 1736년 빈민구호소의 역할로서 처음 설립되었고, 현재 Manhattan Kips Bay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위치한 Public Hospital로서 "Our

mission is to provide the highest quality care to New York's population and to deliver health care to every patient with dignity, cultural sensitivity and compassion, regardless of ability to pay "를 목표로 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Bellevue Hospital은 Public Hospital로서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대부분이고 이에 대해 환자들에게 NewYork 혹은 NYU에서 지원하는 보험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 상담을 진료비가 청구되기 전에 제공합니다. 또한 영어를 못하고 이민 문제에 걸려있는 환자들이 많아, 외래방과 병동마다 번역전화기가 위치하고 있어 10개국어 이상의 통역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이민 문제에 대해 철저히 비밀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Bellevue Hospital에서 오전에는 병동에서 실습을 하였고, 오후에는 클리닉에 들어가서 실습을 하였습니다.

3. 일정

실습은 오전에는 병동실습 오후에는 학생수업 참관이나 외래 참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본적인 Schedule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7:00~8:00: 야간당직으로부터 환자 상태 파악 및 신환 파악 / 배정환자 상태 직접 파악
- 8:00~ 9:00: Lecture (Emergency care for Neurologic disease, Neurologic Examination, Neuroradiology, Stroke Simulation)
- 9:00~10:00: General Neurology 회진
- 10:00~11:00: Stroke 회진
- 12:00~13:00: Lecture (Emergency care for Neurologic disease, Neurologic Examination, Neuroradiology, Stroke Simulation)
- 13:00~: Bellevue Hospital General neurology clinic 참관

첫 3 주 동안은 위와 같은 스케줄로 뉴욕대학교에서 운영하는 public hospital인 Bellevue hospital에서 병동실습 및 외래실습을 하였습니다.

병동실습은 야간당직의 선생님께 아침 7시에 환자에 대한 보고를 들으면서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배정받은 환자를 매일 면담하고 신체검진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레지던트 선생님과 환자의 상태에 대해 토론을 한 후 레지던트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 번 환자에게 가서 상태 파악을 하였습니다. 회진은 Stroke patient와 General Neurology patient로 나누어서 돌았고, Stroke환자들의 전반적 신체건강 관리나 진단이 나오지 않은 General Neurology환자들의 진단 W/U과정을 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는 비대칭적 하지 위약을 호소하던 여자 환자였는데, 루게릭 병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환자였습니다. 루게릭 병이 아닌 다른 병의 가능성을 두고 많은 W/U을 진행하였지만 결국 루게릭 병으로 판명이 났던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는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면담과 신체진찰을 매일 진행하였는데, 자신이 루게릭 병이 강력히 의심된다는 걸 입원한 날부터 인터넷을 찾아보아 예상하고 있던 환자였습니다. 결국 다른 병이 모두 배제되고 루게릭병이 의심된다고 말을 해줄 때, 담담하게 받아들였던 환자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순간 최대한 환자의 아픔을 공감해주고자 노력하였지만 언어적 소통의 한계를 가장 크게 느꼈던 순간이기도 해서 기억에 남습니다.

외래실습은 오후에 진행되었고, 주로 NYU에서 제공하고 있는 1차의료 주치의 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있는 환자들 중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관찰되어서 Bellevue Hospital로 의뢰된 환자들이었습니다. 이 외에 응급실 등에서 치료를 받고 F/U을 하는 Homeless들이나 일반환자들도 있었습니다.

외래는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먼저 환자를 1차적으로 30분 정도 진료를 하고, Preceptor room에

가서 환자보고를 하고 토론한 이후, 다시 돌아가서 환자를 교육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과정에 서 제가 신체진찰이나 면담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기도 했습니다.

주로 감각이상이나 통증, 두통을 주소로 오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아침 8시와 12시에는 레지던트 1년차를 위한 Neurology 수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실습한 기간 이 레지던트 1년차들이 새로 들어온 시기여서 Neurology Basis에 관한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 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수업은 Neurology Examination에 대한 수업이었습니다. 6시간 동안 Mental Status/ Cranial Nerve Exam/ DTR/ Sensory/ Motor/ Gait & Cerebellar Exam으로 진행되어서 평소에 서툴게 하던 Neurology Examination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병동보다는 외래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한국과도 가장 차이가 큰 시스템 이어서 외래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General Neurology가 아닌 Subspecialty clinic도 참가해보고 싶어서 마지막 1주 동안은 개인적으로 요청하여 외래 위주로 참관하였습니다.

월요일: Neuromuscular disorder (Private practice)

화요일: Movement disorder (Bellevue subspecialty clinic)

수요일: General Neurology (NYU main hospital subspecialty clinic)

목요일: Movement disorder (NYU main hospital subspecialty clinic)

금요일: Epilepsy disorder (NYU main hospital subspecialty clinic)

4. 느낀 점

제가 이번에 미국으로 실습을 오게 된 것은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는 미국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미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 이미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온 친구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 자체를 이번에 처음 와봤고, 미국 문화에도 익숙하지 않으며 정보도 부족해서, 이러한 고민을 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번 해외실습에서 일차적 목표는 미국의 의료에 대해서 많이 알고 경험하는 것이었고, 원래 처음에는 Bellevue hospital 병동에만 배정되었지만, 저에게 기회를 많이 주셔서 Clinic에도 참관하고 NYU 교수님 Shadowing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미국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미국의 의료와 미국의 교육시스템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에 도움을 주신 미주동창회 선배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미국의 의료와 교육시스템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장점을 느꼈습니다. 물론 단점도 많고요. 미국은 선진국이지만 의료의 질에 있어서, 한국보다 앞서나가는 점을 저는 찾지는 못했습니다. EMR등

의 시스템은 한국이 오히려 월등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환자와 의사가 소통할 시간이 월등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환자에게도 좋고 전공의에게도, 학생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전공의 1명당 담당하고 있는 환자도 적고, 교수님이 회진 도는 환자도 적기 때문에, 환자들 한 명, 한 명은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래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었지만 전공의 1명당 환자 4명정도만 진찰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간적인 여유는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진료시스템이기 때문에 제일 인상적이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소명 실현이나 교육시스템을 봤을 때 객관적으로 보면 미국이 더 이상적이긴 하지만, 저는 한국 사람이기에 이러한 것들이 마냥 장점으로만 다가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삶을 생각해보면서도 마음을 접게 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느껴졌던 장벽은 역시 언어적 장벽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의사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연구적 목적보다는 환자와 소통을 하고 싶다는 게 컸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러한 소통의 장벽이 크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의 실습은 저에게 고민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장점을 한국에서 어떻게 흡수하고 취할 수 있을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의사가 되어서도 꾸준히 해야 할 고민입니다. 어떻게 환자와 조금이라도 소통할 수 있고, 환자를 더 Care 할 수 있고, 어떻게 더 내가 배울 수 있고, 어떻게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을지 꾸준히 고민하는 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